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자: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우리들 법과 부처님법 따로있지 않아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울때 따뜻하게 앉아서 법담을 서로 나누는 게 원칙인데 내가 부족한 탓으로 여러분을 좁게 드러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됐는지 몰라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자에 내가 아홉 살부터 떠돌던 그런 생각. 예전에 어떻게 처지도 없이 홀렸만 입고 돌아다녔는가. 그래도 춥다는 생각도 없었던가. 무엇이 미처서 그런 것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추운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춥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죄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고비도 없이 공부하겠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월 4일은 입춘이라고 하죠. 입춘이라고 하는 뜻은 어디다가 붙여도 말이 됩니다. 뜻이 되구요. 우리는 형제적인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수에는 입을 연다고 하죠.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오면 말을 하고, 말을 하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 우수·경칩이죠.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봄이 오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이고, 입이 떴다는 날은 입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경칩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될 수 있는 그날인 거고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름은 있되, 이름없는 이름이기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본다면 이름도 참 천차만별의 이름이 많지만, 그 이름대로의 자기의 차원과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도리를 꼭 공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삼천대 천세계의 줄과 인간의 근본의 줄이 직결이 돼 있거든요. 항상 직결이 돼 있는 마음이, 지기가 마음을 쓰고 행동하고 하는 도리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법계에서 다 일체로 돼 있고 거기서 차원이 정해지죠. 근본에서 차원이 정해지고 근본에서 알고 근본에서 아는 것을 우주법계에서 알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서 미래를 돌아서 현재를 돌아서 어떤 현재 땅덩어리에 우리가 있는 한데, 마음의 근원이 영원히 그렇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돌아오고 돌아가고 돌아오고 돌아가고, 그러니 우리가 사는대로 인력이 돼서, 이 세상에 차원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온단 얘기죠. 짐승같이 살면 짐승의 모습이 될 것이고, 사람같이 산다면 사람의 모습을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다 놓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는, 우주간 법계에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인도가 돼서 차원이 높게 모습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먹여살리고 이

**“이쁘든지 밍든지  
죄가 많은 적든  
돌로 보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배풀수 있어야  
海印 받아요”**

러는 사람으로서 또 형성되죠. 그러니까 팔자운명이라는 것을 누가 준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자운명을 겪고, 팔자운명이 없이 자유스럽게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내가 만든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광대하고 무변한지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진짜 해야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먹고 싶어 해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거라면 몰라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해결을 못하고 맙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융통성 있고 지혜가 있으면, 누가 책에 가르쳐주고 말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요런건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조련건 조롭게 해서 해결을 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마음의 물리가 터지면 그렇게 다 활용, 활용이 아니라 용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 데로, 용무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여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되는 거든지, 안되는 거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날이 따로 있



그림·최주현

## 우주법계 줄과 인간근본 줄 직결돼 있어 마음 배우려면 모든것을 마음으로 봐야

고 질문 안하는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는 날이니 우리가 좋은 것만 어떻게 질문하리까. 작고 크고 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여기에서요. 앞을 내다보는 거나, 우주를 보는 거나 그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리를 알아야 하며, 또 우리가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도리를 알아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부처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 건만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해서 돌아가는 걸 몰라서 여여한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배우려면 모든 것을 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일체 하나까지도, 그 나루의 가지에 털 하나 난 것까지도 뿌리에 붙어있는 것이지 떼면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 일투족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돌고 가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나가서 토론하고 만나보고 듣고 하는 그 도리가 전체 뿌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아리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책을 보니까 안됐

다 잘됐다 또는 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리다. 이런 참 말이 옳아, 말을 하는 게 아주 옳은 일이야.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생각하시고 처음에 배우실 때는 무조건 잘 된 거든 잘 안된 거든, 밍든, 밍든, 길든, 못났든, 잘났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모든 것은 거기다 놓고 그저 무조건 인력을 하세요. ‘너만 이 천 물이 새 물로 되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체가 아니고 정신 계이기 때문에 무한량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집에 사람이 들어가지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값에 싸게 사가지고 들어가게 됐다 하면서 “이런 집을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가고 그랬어요. 그 집은 건물은 모조리 만개도 좋고 천개도 좋고 허허허... 심만개도 좋으니 까 몽땅 한 도랑에 있는 거. 한 바다에 집어넣듯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물방울을 한군데다 집어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

는 물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바다이지 따로 물방울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 집어 넣어봐라. 그랬더니 이사를 가서 살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금방 산 사람이 돼서, 또 사람은 되 사람이 돼서, 수레바퀴에 둘러져 가지고 재상이 돼서 나갔으니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의 마음 속을 돌아서 한 번 그렇게 본 받아가지고 나갔으니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이 다 녹아져서 좋아지고, 인간의 두려움이 없이 인간의 나쁜 마음 기운이 없어졌죠. 그저 자비하고 인정받고 권위있게 세상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이러한 사람이 돼서 나가게 됐으니, 꿈에 고맙다고 백배사례를 하고, ‘저는 이제 이 의인을 만나서 좋은길을 걷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잘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만한 구슬 하나를 주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집이 죽기는 커녕 잘 되니까 집을 판 사람이 배가 아플 것 아닙니

까? 하지만 그 사람은 값을 더 준대도 안팔고 오히려 집이 낡았으니까 헐구신 다시 집을 짓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물방울이 수 백개라도 수 만 개라도 한 물에 넣으면 한 물의 그릇이지 만 물의 그릇이 없습니다. 또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일불입니다. 일불(一佛)!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법전에 부처님 만물을 모셔놓거나 천불을 모셔놓거나, 이부처님 저 부처님 많이 해 놓으면 머리가 산란해서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신중, 독성, 칠성, 지장, 관세음, 만불이나 천불이나 할 것도 없고, 마구니들도 볼 아늑게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걱정도 없죠. 산 사람은 모습이 있고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는 까닭에 모습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풍동으로 쳐도 보이지 않으니 누가 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찌는 사이 없이 치고 매를 맞는 사이 없이 맞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깨우친 사람만 열쇠를 받고, 인정

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열쇠를 받는 것도 그런 것을 다 알아서 능통하고 마구니도 볼 아늑게 볼 줄 알고, 자기 아늑이 없지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게 돼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툭 때려서 못 쓰게 만들고, 또 자기한테 맞지 않고 밍다고 툭 때려서 파산을 시키고 이런다면 어떻게 그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이쁘든지 밍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돌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와 풀 아늑게 보고 자기 아늑과 풀 아늑게 보고, 자기 부모 아늑이 없고 자기 자식 아늑이 없고 자기 형제 아늑이 없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한바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 분께서 오셨지만 아니라 항상 문을 열고 사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한 철 사는 것이 오늘 하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공부할 적에 허기가 저서 땅을 엉금엉금 기어가서 흐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그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딱 두 모금을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 모금 마시는데 왜 두 모금을 마시지 못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비호감이 부처님의 책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한 모금도 아홉 모금이 되고 한 모금이 천년에 천 모금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도 천년이 일초가 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천년이 사흘이 될 수도 있고 삼개월이 될 수도 있으니 그대로 앓다 앓다가 없고 또 모두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게 된다는 뜻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한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엮으려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냥 물 먹기가 아주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정이 나야지, 억지로 의정을 내려고 해도 안되고 억지로 아니내려고 해도 안되고, 그냥 스스로 생활 자체가 그대로 평등공법을 배우는 도량처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바빠서 이 공부를 못해”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체제물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다’ 이런 노래를 여러번 잘 부르시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스님이 그런 말을 해서 노래를 하게 했나 하구요.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지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무효예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라는 이름이 나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교 202

##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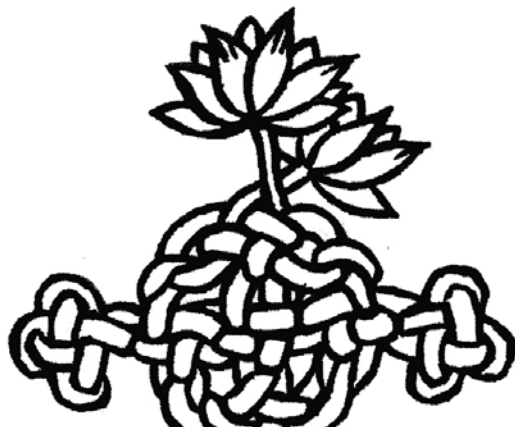
개별적으로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나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일체 만물 만성이 도반인 것이다. 한방 식구인 것이다. 천리를 간들 가깝고 멀고 없이 한 방 식구이다. 나의 한생각이 일체 중생의 생각이요 일체 제물의 생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한 마음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주 법계가 돌아갈 때는 항상 너와 내가 없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일체가 하나의 법망 속에 있어서 상대성 원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한 것이다. 가령 내가 돈 한푼을 벌었다고 할 때 혼자 번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 번 것이다. 만약 남이 없다면 어찌 한푼이든 벌었겠는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살리게 되어 있다.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으며 우주와 함께 살고 우주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 세상 일 중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령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아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으니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리니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만 그것이 또 월급 주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그 상대가 없다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하는 말은 내 속에 상대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소치이다.>

미생물이나 식물이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공급해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벌써 모든 생명체가 서로 주고 받으며 먹고 사는 이치가 있으니 어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음을 모른다 할 것인가



가. 나는 남을 위해, 남은 나를 위해 상대와 상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만 보아도 따로따로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입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일 어느 것 하나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성이 다 거들어야 이뤄지는 것이니 모두가 한마음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주인공에 감사할 일이다>

만약 지·수·화·풍 이런 것을 다 제각기 구해서 살라고 한다면 한시인들 어떻게 살겠는가. 본래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사생의 마음이 다 한데 합쳤기에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형성된 것이다. 갖가지로 정원 꾸미듯 형성된 것이다.

밥 한 그릇 지어 놓고 고맙다 할 때 어디에 감사하는 것인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씨 뿌리고 돌에 나가 일하고 또 거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많은 일손을 거쳐 내게 이른 것이니 전체가 같이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 전체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마음이 아니겠는가. <밥 한 그

릇 놓고 먹을 때 내가 예를 갖추면 전체가 다 감사를 받는 것이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혼자 같고 혼자 먹고 혼자 입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다. 공전·공생이 있을 뿐이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그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또 있는 것을 주어야 하니 그러기에 이 공부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늑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려나 나 하나만 배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내가 배우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이 씨 뿌리고 돌에 나가 일하고 또 거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많은 일손을 거쳐 내게 이른 것이니 전체가 같이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 전체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마음이 아니겠는가. <밥 한 그

협찬: 주인공